친환경농산물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

김이선 · 한영실*
숙명여자대학교 전통식생활문화 전공,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

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비교분석 하였다. 구입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'엽채류'(88.8%)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'과일류'(42.5%), '곡류/잡곡류'(40.5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월식품의 지출비 중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월식품비의 '10-20%'(22.9%)가 가장 많았다. 전문매장 이용횟수는 '주 1회'(40.8%)가 가장 많았고,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이에 대해 96.1%가 '차이가 있다'고 응답하여 대부분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그 차이점으로 '농약과 비료의 사용량'(48.5%)으로 응답하였다.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은 '약간 우수하다'(64.2%)라고 하였고, 교육수준과 월소득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. 친환경농산물의 선호이유는 '건강에 좋으므로'(46.4%), '일반농산물은 유해물질이 많으므로'(43.6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동기는 '건강을 위하여'(94.4%)가 대부분이었고,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만족요인은 '안전성'(4.16), '영양'(4.12), '신선도'(3.93)의 순으로 나타났다. 친환경농산물의 구입에 대한 전문매장 만족도는 '보통이다'(48.3)라고 하였고, 만족 이유는 '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하므로'(34.2%), 불만족 이유는 '가격이 비싸서'(53%)라고 하였다.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구입의사는 '약간 늘리겠다'(46.6%)고 하였으며 가족형태와 직업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.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점으로 '믿을 수 있는 생산자와 제조회사 확립'(33.2%), '가격인하'(26.0%)라고 하였다. 친환경농산물의 전망에 대해 68.2%가 '전망이 있는 편이다'라고 응답하였으며, 연령, 직업,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. 본 연구 결과,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다양한 상품개발을 추진하며 소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하겠다. 또한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지 및 물류센터, 전문매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.

* 담당자 : 심기현
* Tel : 02-710-9471
* 휴대전화 : 017-751-0918
* Fax :
* E-mail : santaro@sookmyung.ac.kr